

Newsletter

- (주) 인투인월드는 다년간 임상시험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들이 모여, 인재육성을 통한 임상시험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입니다.
- (주)인투인월드는 임상시험 관련 규정 준수 및 원칙을 중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투자로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제공합니다.



과도한 의약품 특허법 존속기간 연장, 대대적 개선 시급

미국은 14년, 유럽은 15년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한도 설정, 선진국, 1개의 허가에 대해 1개의 특허만 연장 가능하도록 제한, 국내 특허법, 특허권 존속기간 20년으로 규정...형평성 어긋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업계 환영

위고비 상륙 한 달... 국내 비만약 키우는 '단점 보완'

국내 제약사들도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위고비의 '단점 보완'을 내세우며 더 나은 신약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고비가 국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들이 위고비를 기준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진출 패스트트랙 열렸다"...의료 개방에 바이오솔루션 주목

중국이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광저우·하이난 등 주요 도시를 자유무역특구로 지정, 자유무역특구에서 해외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생산·처방·투약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의료 개방 확대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개발사들이 보다 빠르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올해 상장 제약·바이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에 더 적극적

7개 업체 연결·개별 재무제표 기준 3분기 보고서 분석, 3분기 누계 판관비율 33.6%, 지난해 32.6% 대비 1%p 증가, 판관비율 감소 36곳, 증가 41곳...30~40%대가 가장 많아 이는 올해 매출액 증가율보다 판매관리비 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것에 비교적 더 적극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바이오 분야 특허 우선심사, K바이오 텍 '성장 마중물' 될 것"

특허청은 11월 5일 바이오 분야 특허의 우선심사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바이오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판단해 빠른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특허 출원을 선행하고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해외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자금 조달 및 기술이전 실사 과정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중단, 직원 감축...세포·유전자치료제 손 떼는 글로벌 제약사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세포·유전자치료제 (CGT)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약값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예고도 영향을 미쳤다. 제약사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